

제2, 제3의 '임재연 주무관' 을 기대한다

기고

권병주

전 장흥군선관위 사무국장



임재연과 변학도(가명), 둘 다 장흥군청 소속 직원들이다. 이들은 내가 자치단체를 통해 해결할 일이 있어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둘 다 장흥의 찬란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내게 각인된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확연히 다르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모범공무원과 불량공무원으로 나뉘인다. 이 두 직원의 차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진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규정의 준수 유무이다.

임재연 주무관은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부모와 장애인 형님의 복지·안전 업무로 만났다. 관공서 특유의 느낌적인 느낌이 벗겨지고 기관의 도움 받는 것이 어색한 필자의 마음을 친절함 안내로 풀어주었다. 그는 주민복지담당자로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능동적인 현장답사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3년여가 흘렀지만 언제나 한결같다.

변학도 주무관도 장흥군청에서 근무

하고 있는 직원이다. 앞선 임 주무관처럼 장흥군의 절차를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생겨 담당자로서 만난 공무원이다. 요청 사항은 상대방이 있는 등의 복잡한 민원이 아니므로 신속한 처리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웬 걸, 서너 달이 지나도 답은 없었다. 진행 과정이라도 알려주는 센스도 없었다. 참다 못해 통화를 하게 되면 죄송하고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최종 상급자인 장흥군수까지 성도의 대상이 되었다. 인사발령으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도 후임자와 기본적인 업무인수인계조차 없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의심케 했다. 더 이상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 싫어 이 정도만 할까 한다. 아무튼 언성을 높이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2년이 훨씬 지나서야 최종적인 해결 단계를 밟고 있다.

최근 들어 관공서 및 공공기관 종사 직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공무원 등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갈등이 심해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위협 수준에 달한 것이다.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 민원 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진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량공무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민원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의무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다. 좁게는 지역민의 풍요로운 삶부터, 크게는 지역의 미래까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취지다. 지방화 시대의 큰 축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주민이다. 이 세 축이 서로 협력해야 그 지역은 성공한다. 특히 공무원은 지자체장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심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할 정도로 진절·신속·공정한 민원 해결을 강조하여도 소속 공무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성공과 이미지 개선은 경제·문화적으로 큰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인구가 줄고 그나마 남은 인구마저 늙어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따뜻한 배려에 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는 지자체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가장 쉬운 길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자치단체에는 '임재연 주무관' 같은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 제2, 제3의 임재연을 기대한다. 파이팅!

社說

'사회독버섯' 철거 수사로 강력 처벌해야

광주·전남서 불법촬영 급증세

최근 5년 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은 '디지털 성범죄의 자옥문'이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독버섯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에서 불법 촬영 범죄는 731건으로 이 가운데 727명이 검거됐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19년 120건에서 지난해 178건으로 4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612건이 발생해 51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92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 기준 5년새 53.2%가 증가한 것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는 불법촬영이 난무하면서 디지털 공포가 일상이

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만든 가짜영상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이 무차별 유포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촬영은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다.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완전 삭제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기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중대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말마따나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다. 익명성과 보안성을 무기로 독버섯처럼 활동하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불법촬영에 대한 어느 재판부의 판단처럼 피해자의 삶을 사건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

북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 성공 기원한다

내달 19일 비엔날레서 개막

광주 북구가 오는 10월19일 광주비엔날레 야외광장에서 북구청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게임은 지금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결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두번째 맞는 이번 북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e스포츠는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의 한 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1048억 원으로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 2021년, 지역경기장 관람석 대비 관중 수용률이 13.9%에서 2022년에는 21.7%로 오르는 등 시민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도 엔데믹에 따른 후유증으로 주춤세를 보였지만 19조 79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 게임 수출액도 11조 6040억 원에 이른다.

AI 중심도시이면서 광주와도 정서가 잘 맞는 글로벌 신산업이다. 당장 광주·전남에는 조선대와 호남대 등 3개 대학에 e스포츠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조선대 e스포츠 경기장은 전국 최대를 자랑한다. 전국 최초로 창단된 장애인 e스포츠 선수단 '무등'의 활약도 광주 e스포츠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해에만 모두 25개의 대회를 치르고 53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e스포츠와 관련된 성과도 적지 않다. 발달, 시각, 청각, 지체 등 4가지 분류의 장애 유형별 게임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북구가 두번째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게임을 스포츠이면서 산업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제 성공 여부는 시민의 관심에 달렸다. 북구 등 관계기관도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많은 시민이 e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사업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야 한다. e스포츠는 미래 광주를 이끌 유망산업이면서 청년을 유입해 생기 있는 도시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 4회 말 1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가 세리머니하고 있다. 오타니는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1볼넷 1도루(시즌 56호)를 기록했고 다저스는 4-3으로 승리했다. 오타니는 이날 2001년 스키 이치로의 아시아 출신 한 시즌 최다 도루 타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AP/뉴시스



헤즈볼라의 절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일촉즉발이다.

헤즈볼라의 리더십도 평화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은 파괴하지만 우리는 건설한다...', '우리의 승리는 파괴를 막고 친구의 죽음을 막는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헤즈볼라가 유지돼 왔던 끈질긴 생명력의 이유가 담겨있다. "우리는 결코 단 한 번도 민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뒤가 아니라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희생은 지도부가, 평화는 민중에게, 헤즈볼라는 적에게 한 말과 약속도 꼭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적들조차 헤즈볼라의 말은 신뢰합니다..." 시인 박노해가 헤즈볼라 지도부와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다.

2006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탐욕과 강대국의 비호가 부추긴 불의한 전쟁이다. 무자비한 침략에 희생을 당한 피해자도 죄 없는 레바논의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이 대다수다. '도움도 침략도 필요하지 않다'는 헤즈볼라. 분명한 것은 '죄 없이 죽은 자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도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들을 과격한 이슬람의 테러집단으로 폄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침략으로 절망에 빠진 헤즈볼라의 아이들, 평화와 공존을 외치는 그들의 절규가 가슴 아프다.

이용환 논설실장

서석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쟁 그 후다. 따뜻했던 가정은 사라졌고, 사랑스러운 아들딸은 처참하게 죽어 갔다. 죽은 가족의 빈 자리는 무너진 집보다 더 크고, 죽은 자는 산 자의 가슴 속에서 매일 매일 다시 죽는다..." 2007년 9월, 함평 출신 박노해 시인이 레바논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책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아요'를 펴냈다. 글과 시와 사진으로 전하는 레바논의 진실. 그가 직접 목격한 레바논은 지옥이었다. 이스라엘 탱크는 레바논의 민가를 무차별 파괴했고, 하늘을 뒤덮은 전폭기는 무자비한 폭탄비를 쏟아부었다. 피 흘리고 쓰러지며 아무도 없느냐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도 처참했다.

이슬람 '무장테러단체'로만 알았던 레바논의 핵심 세력 헤즈볼라의 실체도 뜻밖이었다. 아이들과 환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가족과 친구를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깊고 따뜻했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각오에서는 그들의 강한 의지가 읽혀졌다. 헤즈볼라가 꿈꾸는 사회도 '자신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지향을 미국 방식의 물질적 풍요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중동과 13억 이슬람 인구의 구심점으로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